

투자 받아 월급·임대료 지급... 허위 담보물 버젓이 게재

▲P2P금융 진퇴양난

〈중〉금융사고 아닌 사기

등기부등본·사진 등 허위 작성
투자금·운영자금도 분리 안돼
인력·경험 부족도 부실함 원인



최근 잠적한 P2P업체 더하이원클라우드펀딩 이철규 대표(왼쪽)와 오리펀드 조성환 대표

/더하이원클라우드펀딩

몇 개월 새 핀테크 금융산업의 '메기'로 불리던 P2P금융이 한순간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다. 잇따른 업체 대표 잠적 및 먹튀 사건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어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P2P업체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접수하기 바쁘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서류위조, 자금돌려막기 등에 대해 검·경과 협력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P2P 투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2시펀딩, 헤라펀딩, 오리펀딩, 더

하이원, 아나리츠 등에서 나타난 공통된 문제를 파악해 대처한다는 것. 이들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먼저 등기부등본이나 사진 등을 허위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점이다. 2시펀딩이 지난달 투자 받기 위해

〈P2부실업체 현황〉

업체	현황·의혹
2시펀딩	대표 잠적, 대출받기 위한 부동산 사진 위조, 실제 사장과 서류상 사장 다름
헤라펀딩	130억 미상환한 채 부도처리
오리펀딩	대표 잠적·자진출두, 더하이원과 거짓합병, 등기부등본·담보물 위조
더하이원펀딩	대표 잠적, 오리펀딩과 거짓합병, 등기부등본·담보물 위조
아나리츠	대표구속, 자금돌려막기, 투자금으로 주식투자

/각 사 홈페이지·관련소송카페

올린 부동산관련 사진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달 초 오리펀딩은 홈페이지에 올린 기계와 건물사진 일부가 사진 공유앱을 통해 얻은 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P2P업체 관계자는 "허위로 서류를 올리는 것은 투자자들이 P2P업체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자료만 믿고 투자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며 "별다른 감도가 없어 기계 같은 경우 잠시 빌려와 공장에 세워두고 사진 찍은 후 돌려주면 돼 매우 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투자금과 운영자금이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투자금 13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부도를 낸 헤라펀딩을 비롯해 일찍이 대표가 구속된 아나리츠를 제외하곤 적게는 100억 원대에서 많게는 7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지고 업체대표가 잠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P2P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실태를 점검했던 75개의 P2P업체 중 5곳은 관계사나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거나 건설사들이 업체를 세우는 행위로 자체자금을 조달하고있어 사금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P2P금융업체 내·외부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말한다. 핀테크라는 특성을 앞세우며 금융거래보다는 온라인 활용 기술을 앞세우다 보니 대출심사와 담보물 평가, 대출·투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 법인 신용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NPL) 등의 영역을 다루는 P2P업체의 직원 수는 평균 60명 정도이지만 그 중 대출심사와 평가를 하는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검사국장은 "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해 심사나 담보평가가 부실화 될 수 있다"며 "적정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탓에 투자금이 부적격 차주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가구당 순자산 3.8억... 부동산 집중 여전

한은·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지난해 말 국부 1경3817조
전년보다 740조원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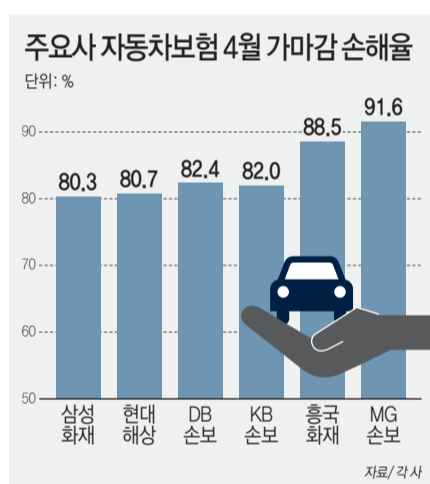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부가 740조원 가량 증가했다. 가구당 순자산은 3억8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은 전년 대비 741조5000억원(5.7%) 늘어난 1경381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1730조4000억원) 대비 8배 수준이다. 비금융자산은 1경3351조5000억원으로 811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순금융자산은 266조원으로 69조8000억원 줄었다. 비금융자산을 자산형태별로 살펴보면 토지자산은 7438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이어 건설자산 4597조8000억원(33.9%), 설비자산 758조2000억원(5.6%), 재고자산 360조2000억

원(2.7%), 지식재산생산물 346조2000억원(2.6%) 등 순이었다. 이우기 한은 국민BS팀장은 "토지자산은 지가 상승, 건설자산은 건설 관련 단가 상승으로 자산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순금융자산 감소에는 대외금융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에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인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2483억 달러로 전년 2779억 달러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됐다.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8062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민순자산의 58.4%를 차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은 9750조원으로 전년 대비 650조2000억원(7.1%) 증가했다. 금융자산이 증가 상승 등으로 277조2000억원(8.2%), 주택자산이 262조2000억원(7.5%) 각각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168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7% 증가했다. /이봉준 기자

車보험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 눈치전

삼성화재 등 4대 車보험사
車보험 손해율 80% 웃돌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악화될 거둬들여 손해보험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주요 손보사는 지난해 손해율 개선을 이유로 잇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내렸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보험료 인상 단행을 저울질 하고 있다. 어느 회사가 먼저 올릴 지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4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를 웃돌았다. DB손보가 82.4%로 가장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고 이어 KB손보 82.0%, 현대해상 80.7%, 삼성화재 80.3% 등 순이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모두 손해율이 악화됐다. 업계는 통상 적정 손해율을 78% 이하로 보고 있다. 해당 수준을 넘기면 자동차보험 판매가 수익이 아닌 손실로 이어지



게 된다. 대형사는 그나마 중소형사와 비교할 때 상황이 나은 편이다. MG손보와 더케이손보의 경우 지난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섰고 흥국화재와 롯데손보 역시 각각 88.5%, 86.4% 등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말 삼성화재를 필두로 전체 손보사가 평균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는데 이후 보험료

인상이 진행되지 않아 올 들어 계절적 요인과 함께 전체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 간 출혈 경쟁이 올 들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삼성화재는 낮은 사업비를 앞세워 자동차보험료를 0.8% 추가 인하했다. 이후 타사 역시 사실상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는 할인 특약 등을 내세우며 시장 경쟁에 가담했다. 메리츠화재가 블랙박스 특약을, DB손보와 현대해상이 각각 자녀할인 특약의 할인폭을 확대하며 사고율이 낮은 우량고객 확보에 나섰다. 시장점유율 1%대에 불과한 흥국화재 역시 지난달 2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보험료를 조정하며 사실상 보험료 인하를 이끌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간 고객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우리은행 이사회 '지주사 전환' 결의

우리은행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체제 전환을 위한 '주식이전계획서' 승인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오는 12월 주총을 거쳐 내년 초 포괄적 주식이전 방식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주식이전 대상 회사는 우리은행, 우리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 등 6개사다. 우리카드와 우리증금에 대한 지주회사 추가 편입 여부는 지주 설립 이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융위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주주총회 등 후속절차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라 vs 신세계, 인천공항점 TI 면세점 새 주인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 모습. /연합뉴스

최종 사업자 22일 판가를 국내 면세점 시장 패권 관심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최종 사업자가 오는 22일 판가를 낸다. 면세사업자 복수 후보인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공항 면세점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등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 두 곳을 나눠 가질지, 아니면 한 업체가 모두 가져갈지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오는 22일 인천공항 T1 출국장면세점 2개 구역(DF1, DF5)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특허심사위원회 면접을 진행한다.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DF5(패션·피혁)은 오후 2시30분부터 각각 신라-신세계 순서로 업체 발표(5분)와 질의응답(20분)이 진행된다. 발표는 한인구 신라면세점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가 각각 맡는다. 장소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그간 심사가 열려온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허청의 사업자 선정 결과는 이날 중 발표될 예정이다. 관세청 심사는 1000점 만점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

의 항목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앞서 이뤄진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계승한다. 이 500점 중 400점이 입찰가격 평가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라면세점(DF1 2202억원, DF5 496억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신세계(DF1 2762억원, DF5 608억원)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 신세계 측은 가격 우위를 기반으로 22일 프레젠테이션(PT)에서 각종 신사업 성공으로 입증된 그룹의 콘텐츠 개발 역량을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신라면세점은 아시아 3대 공항 운영 경험과 사업 철수 전력 없는 점을 내세워 사업가로서의 능력과 안정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가 DF1과 DF5 사업자로 모두 선정되면 호텔신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로 상승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반납으로 점유율이 36%로 떨어진 롯데를 바짝 뒤쫓게 된다. /신원식 기자 tree6834@